

“풍부하고 아름다운 말의 세계”

어린이 그림책이란 무엇인가

마쓰이 다다시

일본 福音館書店 회장 · 아동문학가



마쓰이 다다시씨

일본의 어린이 그림책 출판의 개척자이며 아동문학가인 마쓰이 다다시(松居直·63)씨가 구립 12·13일 두차례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어린이 그림책이란 무엇인가」라는 연례 강연회를 가졌다.

한림출판사(대표 임인수) 주최,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미술가협회·한국아동문학연구소 후원으로 열린 13일의 강연회에서, 마쓰이씨는 그림책이 어린이, 특히 유아기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을 자신이 세 자녀를 키우면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개진했다. 다음은 강연 요지.

그림책은 부모가 '들려주는' 이야기책

한국의 어린이 문화나 교육에 대해 외국인 이 말한다는 것은 불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의 한 아버지가 자식과의 생활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어린이책을 출판하는 일에 활용하면서 무엇인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나는 세 아이들에게 약 10년 동안 책을 읽어준 체험을 통해, 어린이와 그림책의 관계, 어린이와 독서의 의미를 내 나름으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것은 무 의미한 일이다. 어린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유아기에 책이 얼마만큼 재미있고 즐거운 것인가를 체득시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다. 또 유치원이나 보육원에서도 매일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독서'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다. 책이라는 '말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 독서이다. 말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는 독서력은, 유아기에 '귀'로 듣는 풍부한 말의 체험에 의해 길러진다.

언어능력은 '듣는다' '말한다' '읽는다' '쓴다'의 순서로 체득된다. 그리고 '듣는다'는 체험이 폭넓고 풍부하면 할수록 그 기초가 확대되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독서력·이해력·표현력은 피라밋형으로 높고 크게 길러지게 된다.

그런데 부모들은, 책을 읽는 것은 글자를 읽는 것으로 오해하고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글자를 가르치고, 어린이에게 그림책을 읽히려려고 한다. 나는 이것을 반대한다. 이래서는 '귀로 말을 듣는다'는, 언어력의 토대를 만드는 체험을 약화시킴으로써 정말 필요한 독서력이 몸에 붙는 것을 방해한다. 설사 어린이가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경험으로는 그림책을 부모가 읽고 들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독서력이 길러진다고 믿는다.

유아가 혼자서 그림책을 읽는 것과 어른이 곁에서 읽어주는 것과는, 읽고 들려주는 쪽이 몇배나 이해하기 쉽고 즐겁다. 다시 말해서 말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독서력의 기초는 '듣는 훈련'

어린이에게 읽어주는 그림책이나 이야기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옛날이야기이다. 가능하다면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즉, 옛날이야기 그림책의 문장은 옛날 그대로의 말투나 분위기를 되도록 많이 살려서 재구성한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강조하거나, 그림책은 어린이에게 읽으라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어른이 어린이에게 읽어주는 책이다. 이것이 우리 출판사의 기본방침의 하나이다.

특히 유아기에 부모가 아이들 교육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은 '말을 듣는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력을 집중해 마음을 열고 말을 듣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안된다.

어린이의 독서력은 유아기에

'귀'로 듣는 풍부한 말의 체험에

의해 길러진다. 따라서

부모는 평소에 풍부하고 아름답고

충실한 말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그림책은 부모가 읽어서

들려주기 위한 책이다. 바로 거기에

'그림책'의 존재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TV시대, 산업 문명시대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 버리는 습관을 유아기에서부터 짚고 만들고 있다. 우리들은 하루의 생활 속에서 몇십 분이나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목소리로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볼 일이다.

유아기부터 말을 듣는 능력을 몸에 익히게 하려면, 부모가 평소에 풍부한 말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이때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의 내용은 어때야 할까.

어린이가 학교교육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교사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가.

욕심을 말하자면, 부모는 보다 풍부하고 아름답고 충실한 말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 부모가 얘기하는 말의 질과 내용이 빈약하면, 어린이가 교육을 받는 능력을 기를 수 없게 된다. 바로 거기에, 풍부하고 아름다운 말의 세계로서의 '그림책'의 존재의의가 있다.

또한 그림책은 作者의 것이라기보다는 읽어주는 사람의 것이다. 작품 속에서 작자가 표현하고 있는 예술적인 언어(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다)를, 읽어주는 쪽이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언어로 어린이에게 말한다. 그때 말, 즉 그림책이 즐거우면 어린이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듣는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언어는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단단히 정착한다. 말이 마음에 남을 때, 말한 사람 자신도 어린이의 마음에 남게 된다.

“그림책은 어린이의 성장을 돕는다”

말은 마음에 남을 때와 남지 않을 때가 있다. 나의 체험으로는, 유치원 시절 어머니가 읽어서 들려준 그림책은 오늘에 이르도록 선명하게 마음에 남아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는 거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교과서가 무용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림책과 교과서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여 들었을 때 마음에 남는다. 그림책은 어린이에게 있어서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림책을 교과서나 교재로 생각한다면, 그림책으로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림책으로 어린이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의 책이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림책은 다른 무엇에 도움을 주거나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그림책은 '즐거움' 일 뿐이다. 그리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 속 가득히 느낄 때, 그림책은 어린이의 성장을 촉진하는 큰 힘이 된다. 또한 장래에 어린이가 성장했을 때 풍부한 표현력으로서 나타난다. 나의 세 아이를 지켜봐도 그랬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은 無償의 행위이다. 일체의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생각이 필요하다. 다만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을 어린이와 함께 한다는 것 뿐이다.

옛날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림책도 世代에서 세대로, 부모에서 자식과 손자에게로 전승된다. 그림책은 가족의 문화적 기초로서, 또 문화적 공동체로서 중요하다고 믿는다. 한국의 '어린이 현장'에 나타나 있는 정신은 어린이와 그림책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큰 시사를 주는 것이다.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만원
전화문의: 732-1431~3